축제 텍스트

1. 물총축제

여름하면 생각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이 아닐까? 차와 버스가 지나다녀야할 것 같은 큰 도로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물을 뿌리고 맞으며 흠뻑 몸을 적시고 있다는 사실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믿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2013부터 시작된 신촌 물총 축제에 직접 방문한 사람이라면 이 축제가 얼마나 신나고, 크고, 화려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2016년부터는 서울 브랜드 축제로 선정되어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잡기도 한 신촌 물총 축제는 매년 새롭게 달라지는 테마에 맞게 다양한 축제 이벤트가 진행된다. 매년 7월중 2일 동안 연세로의 한복판에 설치된 큰 워터 슬라이드에서 미끄럼틀을 타는 사람들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서로 물총을 겨누며 물총 싸움을 하는 사람들, 키즈존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어린이들 등 물놀이로 더운 여름을 날려버리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각자의 걱정근심을 잊고 한데모여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맥주 축제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쫓아내려 부채질을 하다 보면 시원한 맥주 한잔이 간절히 생각날 때가 있을 것이다. 여기 매년 9월 시원한 맥주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짜릿한 축제가 있다. 바로 신촌 연세로에서 즐길 수 있는 신촌맥주축제다. 매년 같은 내용의 축제가 지루할까 테마도 새롭게 바뀌는데, 2015년에는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2017년에는 ‘수제맥주축제’, 2019년에는 음악과 맥주, 책이 어우러진 ‘북맥축제’를 콘셉으로 매년 새롭고 다양한 맥주축제가 사람들을 기다린다. 단순히 맥주를 마시기만 하는 축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축제 기간동안 오후 6싯부터 9시까지는 연세로 스타광장에 있는 메인무대에서 즐거운 공연도 열린다. 이 기간에 신촌 연세로를 방문한다면 낮에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북 콘서트>를 듣고, 조금 시원해지는 오후에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여러 종류의 맥주를 체험하고 설명을 듣는 <비어도슨트>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여러 밴드의 공연을 듣는 완벽한 일정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혹시 <북 콘서트>나 <비어도슨트>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라면 책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책맥 모임> 강연을 듣거나 <신촌동 미음약국>에서 나만의 맥주 컨설팅을 받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 한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맥주 축제에서 당신의 더위를 날려버리길!

1.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모두의 마음이 들뜨는 12월이 되면 신촌 전철역부터 연세대 앞까지 약 500m의 연세로는 화려한 경관 조명과 장식으로 꾸며진다.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신촌 크리스마스 거리축제가 크리스마스 기간 신촌의 주인공이다.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꾸며진 거리에서 사람들은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신촌의 연세로에서 한바탕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즐길 수 있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친구들, 아이들과 함께 인형극을 보러 온 가족들, 마켓에서 직접 만든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로 거리가 북적인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마음 따뜻한 이벤트도 일어나는데, 약 1000명 가량의 자원봉사자들은 산타로 분장해 소외 계층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몰래산타 대작전’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한곳에 모여 산타 모자를 동시에 하늘로 던져 출정을 외치고 소외된 곳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러 출발한다. 반짝이는 거리를 보며 눈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포토존, 인형극, 이벤트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에서 포근한 연말 추억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

거리 텍스트

1. 봄

봄이 오면 연세로는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벚꽃 구경을 하러 모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연세로, #봄, #신촌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를 거닐며 꽃이 흐드러진 풍경을 즐기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수많은 개인들의 사진과 글들은특별한 행사나 축제가 없어도 언제든, 누구든 놀러오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특히 근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에 잠깐 짬을 내서 가까운 장소에서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신촌오거리에서 연세대까지 뻗어있는 약 500m 길이의 도로를 따라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모습과 차가 없는 도로를 걸어 다니며 꽃구경을 실컷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근처 대학에 다니는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벚꽃 구경을 하러 오는 서대문구의 ‘벚꽃 놀이명소’로 손꼽힌다. 봄의 신촌 연세로는 학생, 주민, 어린이 등 남녀노소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봄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공원 같은 역할을 해왔다.

1. 여름

여름이 되면 연세로는 한바탕 축제와 이벤트의 장으로 변한다. 봄에는 꽃 구경을 하러 온 개인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면, 여름에는 신촌 맥주 축제, 신촌 물총 축제, 등 많은 축제와 이벤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나이와 성별, 인종과 국가 구분 없이 만나고 함께 즐기는 모두의 공간이 된다. 2016 웨이크업 시티 페스타에서는 거리 전체에 거대한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해 많은 사람들이 도심 속 워터 슬라이드를 즐긴 모습을 볼 수 있다. 차들이 없어 텅 빈 거리에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해 물놀이를 즐기고, 차도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둘러 앉아 함께 맥주를 마시고, 밤에는 공연을 보고 거리 전시를 구경하며 더위를 잊는 사람들의 모습이 곳곳에 사진으로, 영상으로, 글로 남아있다. 당신이 무더운 여름날 연세로를 걸어본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수많은 사진 중 당신의 모습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다.

1. 겨울

연말이 다가오면 연세로에는 길 한복판에 커다랗고 반짝이는 트리가 놓인다. 1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그 해의 마지막날이 가까워 질수록 더욱 낭만적이고 설레는 분위기가 된다. 사람들은 한 해를 정리하며 조명으로 온통 반짝이는 거리를 거닌다. 공항 철도의 공식 블로그에서는 연세로를 '행복해지는 거리' 라고 칭하며 "차가 다니지 않아 차도를 따라 부담 없이 걸으며 별빛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루미나리에를 즐기기 좋다" 라고 묘사한다. 2017년 12월 16일 서대문구에서는 '신촌! 첫눈에 반하다' 행사를 개최해 행진을 하고, 인공 눈을 내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고 ,거리를 따라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말을 축하하기도 했다. 2014년 연세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2022년 폐지될 때까지 연세로는 매년 사람들의 시작과 마지막을 책임져왔다

버스킹 텍스트

1. 인디 뮤지션부터 아이돌까지 노래 공연

JYP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 가수 이정과 4인조 밴드 네덜란드 튤립농장, 개성파 뮤지션 김보경과 문샤인, 그리고 데쉬, 이름만 대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실력파 아이돌 비투비까지. 음악 스타일도, 주 무대도 모두 다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신촌 연세로 한복판에서 ‘신촌 버스킹’을 했다는 점이다. 조명도, 음향시설도, 심지어 팬들의 규모도 방송국이나 공연장보다 한참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리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아티스트들이 ‘신촌 버스킹’에서 자신을 알리고, 팬들과 소통하고, 노래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왔다. 누구나 신촌 거리를 지나다니기만 하면 뮤지션들의 감미로운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앞에 나가서 공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자유로움과 가까움이 사람들이 버스킹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닐까? 차 없는 거리라는 지역 특성과 버스킹의 이러한 장점이 만나 생긴 연세로의 버스킹 문화는 이 공간을 더욱 ‘젊음’의 거리로 만드는데 한 몫 했다. 연세로를 거닐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번쯤 스치듯 노래를 들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노래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누군가 옛날 신촌 연세로의 어딘가에서 같은 노래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1. 대사 텍스트

살인적인 추위였다.

이미 해는 지고

기온은 떨어지고

바람은 불고....

열정 하나만으로 추위를 이기며

음악을 들려준 더 페인트(THE PAINT)입니다.

설마....하는데 음악은 시작되었습니다....^^

둘은 커플이라고 소개합니다.

햇살이 조금만이라도 살아있었다면

보는 이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했을 듯 싶습니다.

꽁꽁 동여맨 옷깃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신촌 버스킹을 보며 어느 한 블로거가 남긴 글-

1. 더 리슨

“가을로 떠난 7인의 음악여행! 명품 목소리로 뭉친 ‘성대 미남’ 허각, 신용재, 김원주, 임한별, 손동운, 주호, 김희재가 활력이 넘치는 예술관광 대표도시 광주 곳곳에서 펼치는 버스킹 리얼리티” 2021년 9월 방영된 한 예능 프로그램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광주로 버스킹을 떠나는 예능인데 이들은 광주로 떠나기에 앞서 ‘버스킹의 성지’라는 서울 신촌에서 먼저 무대를 펼쳤다. 유투브에 ‘더 리슨 신촌 버스킹’을 검색하면 이들이 신촌 거리에 놀러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관객들이 따라 부르고, 함께 손을 흔들며 즐기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연세로가 시작된 후부터 계속되어온 신촌의 신나는 버스킹 문화의 모습이 TV 프로그램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 외에도 ‘신촌 버스킹’, ‘연세로 버스킹’ 등의 키워드를 여러 sns에 검색하면 수많은 직캠과 방송 영상이 나온다. 버스킹을 주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의 한 꼭지로 나올 만큼 신촌 버스킹 문화가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고 경험이고 즐거움이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신촌 연세로를 추억하고 싶다면 생생한 버스킹의 현장을 검색해 그날의 즐거움과 설렘을 되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